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단체명	이재명 20대 대통령 후보 직속 해양수산정책위원회	위원장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담당자	홍형주 팀장 / 010-8608-4365	담당자	이우형 / 010-2594-5338
		E-mail	yoongj542@naver.com
사진	0	영상	X

## 민주당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원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수산업계 현안 청취

-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수산업계와 함께하는 민주당 되겠다!”
- 윤재갑 해양수산정책위 상임위원장,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철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산하 ‘해양수산정책위원회’는 14일 77개 수산 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와 수산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건의서 전달식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퍼포먼스를 가졌다고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해양수산정책위원회 윤재갑 상임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이원택·주철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수총에서는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 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수산업계를 대표하여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준택 한수총 회장은 수산업계를 대표하여 윤재갑 해양수산정책위 상임위원장에게 ▲CPTPP 가입방침 철회 ▲일방적인 해상풍력 추진 반대 ▲군 급식 조달 체계 개편 반대 등 수산산업 현안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및 CPTPP 가입 등 결사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노량진수산시장 내 판매되고 있는 일본산 생태를 대상으로 방사능 유출 검사

시현을 진행했다.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수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책임과 대안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말하며, “수산업과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 라고 밝혔다.

선대위 해양수산정책위원회 윤재갑 상임위원장은 “일본의 반인륜적인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하며, “수산물 안전성 강화와 소비 촉진을 통해 수산물 소비 위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끝)

[첨부] 현장 사진

